

'KREI리포터' 충북지회 간담회 결과

1. 개요

- 목 적: 충북지역 농업·농촌 현장여론 수렴
- 일 시: 2018년 6월 21일(목) 12:00~16:00
- 장 소: 충북 괴산군
- 참 석: 총 11명
 - 충북지회 리포터(9명): 박종임, 윤정임, 이종범, 김형수, 서명희, 이한늘, 임현욱, 정일영, 서동구
 - 연구원 관계자(2명): 송성환 전문연구원, 김미리 주무원
- 주요 일정

시 간	일 정	비 고
12:00~13:30	점심식사	- 장소: 삼태기
13:30~14:30	견학	- 박종임 회원농가 '가을농원'
14:30~16:00	간담회	- 충북지역 농업·농촌 현장여론 수렴

2. 주요 논의 내용

- 회원농가 및 선진지 견학
 - 박종임 회원농가 '가을농원'
 -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박종임 회원농가 '가을농원' 을 방문
 -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가을농원은 친환경 사과, 복숭아를 생산하며 특히 '껍질째 먹는 사과'로 유명
 - 인터넷과 직거래를 통해 90%이상 판매하고 있으며, 나머지는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으로 유통
 - 풀을 뽑지 않고 가꾸는 초생재배를 통해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으며, 쌀겨나 전지목을 파쇄해 발효시킨 것을 퇴비로 사용하는 친환경 재

- 배농법을 고수하고 있음.
- 식생활 전문가 양성과정, 농산물 가공아카데미를 수료하고, 한국농촌 관광대학,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과정을 이수
- 농식품부가 선정하는 농촌융복합산업(6차산업) 사업자 인증 및 스타 팜에 선정

○ 충북지역 농업·농촌 현장여론

- 농기계 보조사업으로 인한 농기계 가격 상승으로 실질적 보조효과 미비, 농기계업만 이익이 돌아가는 실정
- 사과 따는 농번기에는 인력이 부족해서도 활용 못하지만 특히 차량지원, 소개 수수료, 새참과 식사, 일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훌쩍 넘는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어
- 일당에 모자라 회식비, 여행비를 요구하며 일꾼들의 갑질이 더한 실정
- 불법체류 신고, 높은 인건비와 수수료, 원활하지 않은 수급에 농번기 인력 활용에 어려움 여전
- 농산물 과대포장에 따른 비용발생 높아, 환경부의 규제 지침과 상반되게 백화점 등에서는 고급포장을 강요하고 있어
- '맛이 아닌 눈으로 먹는 음식'은 옛말로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, 비용절감을 위해 정부정책으로 포장 규제를 마련해야
- 홍보, 마케팅,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정부 지원 '농촌 코디네이터 제도' 신설 요망
- 농업인은 농사에 젊은이들은 농사를 기반으로 한 문화상품에 투입되도록 호주의 'WWOOF'를 벤치마킹, 농사 짓는 농촌이 아닌 문화상품으로서 농촌의 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마련
- 실질적으로 받기능을 하는 임야 등 농지전용 규제를 완화해 밭직불금 지급 요망
- 농산물 GMO표기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규제 마련 필요

- 농업인단체가 너무 많아 일부 통폐합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

○ 충북지회 임원 교체

- 충북지회장: 윤정임(충북 보은군)⇒ 김형수(충북 보은군)

- 충북지회 총무: 박종임(충북 괴산군)⇒ 이한늘(충북 청주시)

3. 이모저모

